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선상낚시의 매력 속으로

12월 10일까지 112일간 운영...어선 37척 한시적 허가 먼거리 출조 부담없이 20분 정도 이동시간만으로 즐겨

2023년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가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2일간 운영된다. 갈치낚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진행된다.

시는 낚시 어선 37척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바다와 도시공간이 공존하며 먼거리 출조의 부담없이 20분 정도의 이동시간만으로 선상 갈치낚시를 즐길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초보자도 손쉽게 할수 있어 가족단위 낚시객이 많이 찾고 있다.

지난 3년간 평화광장에서 갈치낚시를 즐긴 이용객은 ▲2020년 5,222명 ▲2021년 3,929명

▲ 2022년 10,537명으로 코로나 이후인 지난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광장 갈치낚시 참여 예약은 인터넷으로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검색한 후 업체에 직접 전화하면 된다.

낚시배는 북항, 남항에서 출발해 목포의 야경을 감상하며 평화광장으로 이동한다.

박홍률 시장은 "올해는 제 104회 전국체전과 제 43회 장애인 체전 등 전국규모의 행사가 열려 목포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다. 갈치낚시를 통해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 등이 함께 행사참여 선박 37척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사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제2회 청소년 친선 온라인 바둑대회 개최

무안군은 18일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상주시와 제2회 청소년 친선 온라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무안군과 무안군바둑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청소년 교류의 하나로, 무안군과 상주시 각 7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바둑 플랫폼 및 실시간 현장중계로 진행됐다.

무안군 대표팀은 오봉초 안지원(1단), 최의재(2단), 영산초 이진혁(2단), 행복초 이용준(3단), 옥암중 이승재(3단), 한국바둑중 임재현(5단), 마리아회고 서수영(5단)이며 상주시 대표팀은 상수 실험초 고신역(3단), 보자초 손계태(5단), 석매초 이국의(5단), 세도실협초 탐승흡(5단), 곤승중 상근돈(5단), 금하중 장소(5단), 룬화외국어중 서령과(5단)으로 구성됐다.

경기는 국가별 팀 대항전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상주시의 승리로 경기를 마쳤다. 무안=이기성기자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등 고충 해결법은?"

영암군, '외국인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실시...통역사 배치·90여 명 참석

영암군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 찾기 교육을 실시했다.

영암군이 지난 20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삼호읍 한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직장 생활 등으로 주중 센터방문이 어려운 베트남·네팔·태국·우즈베크 출신 외국인주민과 재외동포 등 90여 명이 참석해 권리 찾기와 구제방안에 대해 배웠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을 통역사로 배치해 한국어를 몰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 외국인주민은 ▲4대 사회보험 ▲임금 계산법 ▲산업재해 보상 방법 등을 알고, 이주

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특히, 교육 강사로 나선 이정봉 공인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산업재해 유형과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나아가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안을 놓고 노무상담을 실시해 애로를 해소해줬다.

영암군은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날 교육과 상담 이외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고용주·산업안전·인권보호 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환경교육' '금융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9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영광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130여명을 대상으로 '약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주제로 아동 눈높이에 맞춘 "골든벨 의약품 퀴즈" 및 "나는야 약박사 O×퀴즈"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약사회 소속 약사를 초빙하여 1일 2회 총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약의 역할 ▲오남용의 정의와 오남용하기 쉬운 약물 ▲올바른 약물 복용법 ▲의약품 보관법 및 올바른 폐기법 ▲약물이상반응(부작용)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올바른 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스스로가 위험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우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영광=서희연 기자



함평군, 농산물가공 교육 기초반 수료식 성료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농산물 가공 교육 기초반' 수료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1일 밝혔다.

'농산물가공 교육 기초반'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10회 총 40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33명이 수료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식품 소비 경향 파악 ▲식품 위생 ▲주요 식품가공기술 ▲가공창업인·허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발돋움이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가공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 공유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9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석하여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김동원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클레미 지방정부회원 단체장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별 현황과 국가와의 협력 사례 및 한계점을 공유했고,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주민의 기본소득창출 현황을 공유하여 지역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큰 호응을 받았다. 신안=이택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